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호 【루계 제25881호】 주체107(2018)년 1월 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김정은령도자 평양이 미국본토의 임의의 곳에 도달할수 있는 핵무기계획을 완성하였다고 천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미국언론들이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미국의 통신, 방송, 신문들이 보도하였다.

AP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에 대해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성취되였다고 하시면서 미국본토전역이 조선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고 UPI통신은 보도하였다.

CNN방송과 NBC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이라고 하시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신문《월 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평양이 미국본토의 임의의 곳에 도달할수 있는 핵무기계획을 완성하였다고 천명하시였으며 올해에 나라의 강철생산을 늘이고 경제의 자립적능력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신문《워싱톤 포스트》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였으며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데 대해 언명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지역기구들 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지역기구들이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조선인민이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랍지역위원회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신년사에서 평화수호의지를 명백히 밝히시였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백두령장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다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격찬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1년 12월 30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김정은원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기백이 넘치시며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으며 적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 빠져들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와 꼭 같으신 백두령장이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공식대표는 세계언론들의 초점속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찰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평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특징은 우선 시공간적인 한계가 없다는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추운 겨울날, 무더운 여름날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을 이어가신다.

명절날과 일요일도 병사들을 찾아 현지시찰의 길에서 보내시는 때가 많다. 그 현지시찰이 며칠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찾으시는 단위들과 만나시는 군인들에도 한계가 없다.

특징은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하다는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찰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계신다는것이다.

꼴롬비아공산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지휘부로부터 시작하여 중대와 최전방초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위들이나 다 찾아가신다.

그중에는 멀고 험한 령길을 넘어 찾으신 깊은 산중의 이름없는 초소도 있고 파도세찬 바다를 헤쳐가신 외진 섬초소도 있다. 지어는 조선의 북과 남을 가른 군사분계선상, 말그대로 적들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판문점초소도 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전투준비상태나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기에 앞서 병사들의 생활부터 료해하신다.

병사들을 만나시여서는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는 힘들지 않는가 등을 다정히 물어주시며 육친의 정을 기울이신다.

이처럼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푸시는분이 바로 김정은최고사령관이시다.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전략무기들을 다 갖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정예의 무력이다.

《핵우세》를 떠드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더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려는것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확고한 의지이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위험한 로케트조립장, 발사장들에까지 가시여 전략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각이한 조건과 정황에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최정예의 무력으로 전변되였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는 김정은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수리아 다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국제사회는 김정은각하를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신 가장 걸출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에 있어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자

철강재생산성과로 당을 옹위해갈 불같은 충정의 발현

금속공업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높은 생산실적 기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증산투쟁, 돌격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일현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하루평균 주체철생산계획을 140%로, 재령광산, 은률광산은 철광석생산계획을 각각 1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지난 5일 4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자랑찬 위훈도 창조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새해벽두부터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강철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철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철강재생산을 늘여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불의 격전이 금속공업부문의 일터마다에서 벌어지고있다.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주체의 쇠물을 뽑으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들은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기존관념, 경직된 사고방식을 털어버리고 현실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돌고나가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새해 첫날 하루 주체철생산을 계획보다 2배로 늘인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공정간 맞물림을 짜고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월 주체철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대고조의 불길로 당중앙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본받아 황철로동계급은 새해전투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는것을 단순한 증산투쟁으로가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내는 문제로 보고 주체철생산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용광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원료배합과 용해공정에서 나서는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당의 부름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새해 정초부터 우렁찬 발파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지난 5일 4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이들은 대형굴착기와 회전식착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철강재생산의 선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그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짜고들어 강추위속에서도 설비가동률을 높이고있으며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선광장과 잇닿은 제품장에는 금속공장들에 보내줄 질좋은 정광이 하루가 다르게 키를 솟구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상은 재령광산의 전투장마다에서도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첫날전투에서부터 철광석생산을 1.5배로 끌어올린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은 매장량이 풍부한 채굴장들을 타고앉아 채굴 및 운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매일 많은 량의 박토와 철광석을 실어내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이들은 새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일평균 철광석생산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광산의 광부들은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생산성과 실수률을 다같이 높이면서 승리의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새해진군길에 나선 은률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높은 철광석생산성과로 화답하고있다.

광산에서는 첫 전투의 중심고리를 심부채굴장확보에 정하고 채굴장에 전개될 굴착기와 대형화물자동차는 물론 운반공정과 사별공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보수도 미리미리 예견성있게 짜고들었다.

이곳 광부들은 스스로가 하루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고있다.

강철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질풍쳐 내달리는 금속공업부문의 미더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열화와 같은 충정과 혁명적기상에 의해 성과는 날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철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 활발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일현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로력수송을 70%이상 보장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수송수요와 철도의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수송계획부터 바로세우고 수송공정전반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여야 합니다.》

철도성에서는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해전투에 진입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건설기계, 자재들을 정해진 시간안에 목적지까지 지체없이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성과 평양, 함흥, 개천철도국들에 강력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고원역, 거차역, 신성천역을 비롯한 주요역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정연한 지휘체계에 따라 렬차편성으로부터 출발, 도착의 전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해나가고있다.

수송실적이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속도라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은 성의 수송지휘부문 일군들은 련관부문, 련관단위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륜환선을 리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렬차들을 제때에 뽑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함으로써 수송에서 혁신을 안아오고있다.

나라의 철도수송에서 많은 몫을 맡고있는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로력과 건설기계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국의 일군들은 여러 역들에서 수송량에 맞게 배차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렬차를 제때에 떠나보내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워 수송에서 매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도록 하고있다.

국아래 서평양기관차대, 신성천기관차대, 평양기관차대, 사리원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은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기관차점검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면서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로력과 건설기계수송길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신성천객화차대와 명당렬차검사대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객차, 화차검사와 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개천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로력과 건설기계들의 수송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렬차운행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차풀이와 차무이는 물론 운행중에 역들에서의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함흥철도국아래 원산철도분국과 고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물동수송전투때에 발휘하였던 투쟁기풍으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급격히 늘어난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청진철도국과 청룡차량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전시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건설기계수송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기세차게 전진

석탄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새해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석탄공업성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만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 좋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석탄공업성과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석탄공업성의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각지 탄광들에 달려나가 막장마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지난해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첫 전투부터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석탄생산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기 위한 근본방도가 당정책결사관철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새해 정초부터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막장마다에서 증산돌격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와 각지 탄광의 책임일군들이 막장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격정을 함께 나누며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피륙는 가슴마다에 간직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천수백t의 석탄을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의 탄부들은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줄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를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령대탄광의 탄부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강력제일주의로 과감히 돌고나가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여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한마음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자강도공급탄광에서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가며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밖에도 개천, 봉천, 조양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각지 탄광들에서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도 뚜렷한 생산실적으로 당의 전투적호소에 힘차게 화답해나섰다.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며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속공격,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합니다. 김 정 일

혁명가의 참된 인생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확언하신것처럼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이다.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호소는 우리의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관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사람만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한 삶을 꽃피울수 있다.

혁명가와 참된 인생관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자신의 한평생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깡그리 바치시며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가들이 어떤 인생관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피력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 말은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도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혁명가는 절대로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이 조선의 혁명가들의 아름답고 값높은 인생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데 가장 보람찬 삶이 있다.

1990년대 중엽으로 말하면 적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던 시기였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나가자니 시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였다. 적들은 《사회주의종말》과 《북조선의 조기붕괴》를 떠들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 찬란한 래일을 굳게 믿으시였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였다.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가장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신 위대한 장군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강계의 눈보라길도 헤치시고 철령도 넘으시였으며 오성산에도 오르시였던 우리 장군님이시다.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이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 걸으신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의 그 길에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가 마련되고 군력강화의 새 력사도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자랑찬 현실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느해인가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하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잊지 못할 그날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의 구절구절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롱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하게 될것이다. …

절세위인께서 헤치신 력사에 류례없는 그 국방력강화의 길을 돌이켜보며 우리 인민은 미래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위인께서만이 후손만대의 번영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혁명에 깡그리 바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그런 참된 인생관을 지닌 사람만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꿋꿋이 헤쳐나갈수 있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혁명적락관과 랑만의 소유자가 될수 있으며 피죽을 먹어도 달게 먹으며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길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런 인간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위해 싸우다 값있게 삶을 마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참된 인생관이야말로 혁명가의 생명이다.

우리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래일,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고 한생을 살아도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 땅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이 숭고한 인생관을 자기의 인생관으로 소중히 간직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갈 열의에 넘쳐있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이 있다.

우리모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참된 혁명가, 참된 애국자로 한생을 빛내이자.

본사기자 림 정 호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항일혁명투사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과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쓰러질수도 있고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으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울수 있은것은 무엇때문이였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간악무도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투쟁하였기에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신념에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항일혁명투사들은 눈물겨운 아픔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이겨내고 그처럼 어려운 혁명의 길을 동요나 변심이 없이 끝까지 걸어올수 있었다. …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이 신념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운 피를 바칠수 있은것 아니던가.

항일의 나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조선혁명의 앞길에 또 한차례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였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엄혹하고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독립되리라는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있는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 하게 될지 10년 더 하게 될지 그것은 찍어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

대원들은 와락 그이의 팔에 매달리며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렸다.

우리가 갈길은 오직 혁명의 길밖에 없다,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데 있다는것을 뼈에 새기였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섰고 그 길에서 모진 추위와 굶주림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던것이였다.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최희숙동지며 모진 고문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사령부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허를 끊은 마동희동지…

그 어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미래를 락관할줄 아는 신념의 강자들이였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개구리료리로 명절음식을 대신하면서도 해방의 날을 그려볼수 있었고 낯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그토록 소리높이 웨칠수 있었다.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 가루되여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혁명신념을 굽히지 않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항일투사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을 삶의 숭고한 목적과 리상으로 내세우고 그들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신념을 고수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고결한 인생관을 지닐 때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더욱 굳건히 다지는 신념과 배짱이 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최후승리에 대한 필승의 기상이 높뛰고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 불굴의 투지가 넘쳐나는 이 말속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있다.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20여년전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는 지금보다 몇갑절이나 더 어렵고 힘겨웠다.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졌던 그때 이 땅에 생의 활력을 부어주고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거인처럼 일떠세운것은 바로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과 배짱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인민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라고 하시며 승리할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확신하고계시였습니다.》

잊을수 없는 그날은 대소한의 강추위가 대지를 팡팡 얼구던 1월의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모든 시련과 고난을 뚫고 사회주의를 지켜나간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런 신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싸우면 당해낼자가 없습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신념과 배짱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승리의 새 봄을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혁명적신념과 배짱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흠모에서 분출되는 고귀한 사상감정이다.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지난해 우리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민족사적대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안아올수 있은것도,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은것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과 배짱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부강하게 하리라는 불같은 각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딛고일어나 기어이 해내고야말 불굴의 투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것이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을 지닌 사람들만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용감하게 전진할수 있다.

하기에 당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그토록 강조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며, 우리를 어째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주체조선의 신념과 배짱이 온 세상을 진감시킨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본사기자 김 준 혁

고귀한 뜻, 영원한 지침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수십년전 4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어느 한 대회에 참석하시여 대회참가자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교육자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래를 사랑하는것은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라고, 혁명가들은 자기자신의 오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상이 없는 사람,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가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가들은 미래를 사랑하며 새것을 사랑하기때문에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적극적으로 투쟁한다고 하시였다.

오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깊은 의미를 안고 대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이 있을수 없다고, 그들은 오늘에 만족할수 없으며 더 좋은 앞날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교시는 우리 인민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부강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 나갈수 있게 한 고귀한 가르치심이였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주체98(2009)년 6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열혈의 애국투사가 되자면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려는 헌신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애국자들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저력있게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일군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계속되였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이다.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강국의 억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오늘의 일분일초를 래일을 위한 위훈창조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조국의 억센 뿌리가 되려는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만이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빛내일수 있다는 고귀한 뜻을 새겨주며 오늘도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히 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자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이 있다는 사상은 오늘의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먼 앞날까지 내다본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데 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이다. 자연자원과 로력자원, 자금에 의하여 경제발전이 좌우되던 지난 시기와 달리 오늘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자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더욱더 완비할수 있다.

지난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코에 걸고 불법무법의 유엔《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면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렸다.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속에서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현대화의 본보기공장들이 일떠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무쇠철마를 비롯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탄생하였다.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이 늘어나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이 이룩되였으며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린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다. 이 혁혁한 성과들은 주체과학의 위력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올해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전투목표는 비상히 높으며 애로와 난관도 의연히 겹쌓여있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하자면 지난해처럼 과학전선이 용을 쓰며 일어나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이 작용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의 가장 곧바른 길이 있다.

그것은 또한 이미 닦아놓은 경제적토대와 잠재력이 최대한 은을 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한평생 수많은 공장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이 땅우에 자립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여 자립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열렬한 애국충정과 고귀한 피땀으로 마련하여놓은 자립경제의 잠재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탄, 주체무기들이 팡팡 개발생산되고 해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무수히 솟아나고있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져주신 자립적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최대로 은을 내도록 하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향상시킬수 있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것이다. 지난해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배출된 전형단위들의 투쟁성과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전형단위들이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증명할수 있은것은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며 일군들의 경험이 남달리 풍부해서도 아니다. 중요하게는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한데 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목표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와 선후차를 옳게 가르는 능숙한 작전,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설계하고 립체전, 전격전을 들이대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사업기풍,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따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진취적인 일본새, 이것이 전형단위 일군들의 기업관리에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현실은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실천력을 지니고 작전과 지휘를 면밀하게 하고 완강하게 내미는 곳에서는 성과가 이룩되지만 난관앞에서 동면하며 패배주의에 빠져있으면 언제 가도 추서지 못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경제작전과 지휘의 혁신,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주체화, 자립화를 다그치고 증산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열쇠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용 일

값높은 삶에 대한 표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습니다. 살아서도 빛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 영웅입니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삶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빛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설계가에 대하여 추억하신적이 있다. 그날 건설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전에 한 설계가가 어느 지방도시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설계가가 지금 어데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며칠이 지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치하의 교시를 받은 그 설계가를 찾았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졌던 한 설계가를 잊지 않으시고 그토록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 설계가로 말하면 이역땅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때 재산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과학기술서적을 가지고온 애국자였으며 부강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삶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참된 지식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설계가가 평양에 있는 한 건축물의 개작공사설계를 담당하고 마감단계공사를 다그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영웅적으로 희생된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설계가의 공로를 헤아리시여 그를 영웅으로 내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이 부족하신듯 설계가의 안해와 자식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애로되는것을 다 풀어주라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희생된 한 설계가가 받아안은 영웅메달,

그것은 한생토록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애국으로 빛내인 보람있고 값높은 삶에 대한 표창이였다.

오 영 심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자

거창한 변혁을 펼치시는 위대한 손길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였던 온 삼지연땅은 오늘도 해솟는 백두밀림처럼 설레이고 있다.

216사단 돌격대원들과 삼지연군인민들은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주체105(2016)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12월의 추운 겨울날에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성스러운 투쟁이 벌어진 건설전역을 밟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뜨거우시였다.

완공을 앞둔 혜산-삼지연철길을 비롯하여 백두대지의 혹한속에서도 대상건설들에서 이룩된 기적같은 성과들을 보고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의리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한 돌격대원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주고싶은 심정이시였다.

무균화, 무진화, 무인화가 실현된 로력절약형공장,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가 잘 구축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희한하고 멋있는 공장,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이미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천출위인상으로 력력히 빛을 뿌리였다.

백설을 휘날리며 삼천리를 굽어보는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가슴에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꾸려갈 웅지를 무르익히시며 하얀 눈길우에 무한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찍어가시였다.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고 새로 개건된 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에서는 전국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관리운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제일강자, 당정책관철의 제일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

사상의 제일강자, 당정책관철의 제일결사대로!

삼지연군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이다.

삼지연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이 지척에 보이는 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여나가는 사업에서 마땅히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였다.

백두밀림이 장엄한 교향곡을 울려여주는 삼지연못가의 삼지연혁명사적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건설총계획모형사판을 보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의 휘황한 작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을 세계가 보란듯이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는 그 목적과 의의가 더없이 숭고할뿐만아니라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거창한 투쟁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적고향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잡도리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자면 설계형성안에서부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에 맞게 산골군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대상의 용도에 맞게 하며 류사성과 반복을 없애는 문제,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인 일군들이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조직자적수완과 사업능력이 뚜렷이 표현된다는 자각을 새겨안고 삼지연군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송풍기가 되고 기수가 되여 군중을 불러일으킬데 대한 문제, 건설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풀어주는것과 함께 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삼지연군꾸리기를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실속있게 짜고들데 대한 문제…

력점을 찍어가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삼지연군일군들에게 혁명의 성지꾸리기가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어떤 높이에서 진행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방의 강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으시여 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력사적인 화폭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선혁명의 발원지, 우리 혁명력사의 제1페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백두대지에 새겨가는 영웅적위훈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

흰눈꽃핀 백두대지에 눈부신 해빛이 유난스럽던 영광의 그날 당중앙의 이름으로 전체 돌격대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늘도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장들을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백두전역의 돌격대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창조의 능수들로 몰라보게 성장시키였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고 하늘을 날던 새마저 얼어서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는 무서운 폭설과 혹한…

이 횡포한 자연의 광란과 싸우며 우리의 열혈심장들, 용감무쌍한 돌격대원들이 준엄한 건설전투를 어떻게 벌려나갔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연청년역으로부터 삼지연못가역에 이르는 150여리의 혜산-삼지연철길, 철길부터 놓아야 수백리 백두전역에 이르는 모든 건설장들에 방대한 량의 물동을 연방 들이밀수 있었다.

년중 겨울이 길고긴 백두산지구, 긴박한 공사기일을 두고 현지에서는 공개당총회들이 열렸다. 당원들도 청년동맹원들도 불끈 쥔 주먹들을 높이 쳐들었다.

백두산의 화산분출로 하여 온통 부사뿐인 지대, 돌만 가득한 지대, 산이 통채로 흘러내리는 엄혹한 자연조건이 련대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성, 중앙기관련대가 차지한 지대는 온통 부사로 덮여있어 건설에 필요한 막돌을 얻자면 수십리나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때 돌격대원들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목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우리가 딛고선 땅은 항일전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처럼 살며 싸운다면 우리앞에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전투가 벌어졌다. 눈길을 헤치고 언땅을 까내며 도로를 내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삽날과 도끼도 랑랑 튀여오르게 하는 두터운 얼음장을 까내는 일은 순간에 온몸의 힘을 진하게 하였다. 북방의 엄혹한 추위와 눈보라도 걸음걸음 돌격대원들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갈수록 추위는 더해만 가고 작업량은 방대하였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적기가》를 힘차게 부르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한치한치 돌파고나갔다.

지난해 봄 해토가 되면서 줄기차게 로반을 열어나가던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황해남도련대가 전진을 멈추었다. 산이 물먹은 담벽처럼 통채로 무너져내리면서 이미 형성한 로반을 돌과 흙사태로 덮어버렸던것이다. 피압차굴의 두터운 콩크리트가 무서져나갔으며 철근마저 엿가락처럼 휘여들었고 옹벽이 무너져내렸다.

사단에 폭풍구령이 내렸다.

전투력있기로 소문난 618건설려단 인민보안성련대,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평양시, 황해남도련대가 결사대가 되여 현지에 급파되였다.

돌격대원들은 관가리싸움에 나선 병사들마냥 산더미처럼 쌓인 토량을 밀어버리며 로반을 열기 위한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아름드리거목의 허리도 순식간에 꺾어버린다는 유명한 《보천보바람》이 지동쳐 금시 쳐놓은 천막을 날려보내며 차디찬 싸락눈이 흩날리던 그날 신발도 벗지 못한채 새벽녘 쪽잠에 들었던 돌격대원들은 밤사이에 파낸 자리에 또 사태가 나면 다시 번쩍 일어나 돌격전에 나서군 하였다.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건물골조만 보여 완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던 삼지연청년역건설장에서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 정치일군이 당보를 펼쳤다. 우리 생존의 원천과 토대는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자원이고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쉬임없이 분출시키는 무궁무진한 자강력이라는 글발을 읽어가는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건설장에 울려퍼졌다. 돌격대원들모두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담대한 배짱과 신념을 안고 영용한 216사단 돌격대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어찌 철길건설장만이랴.

군인건설자들과 량강도려단 돌격대원들, 량강도인민들은 단 몇달사이에 하나의 《공장거리》를 방불케 하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단숨에 일떠세웠다.

큼직한 직판판에 나붙은 글발도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이고 노래도 전시가요였다. 그야말로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던 감자가루생산공장건설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지시를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과연 어떻게 결사관철하는가를 보여주는 결전장이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216사단의 모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을 전국의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백두대지의 혹한속에서 기적같은 성과들을 이룩한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공격전에 나섰다.

강용한 그들은 말한다.

조국이여, 우리를 굳게 믿으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성장해가는 우리들은 머지않아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리라!

산간지대의 멋이 살아나게

삼지연청년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게 뾰족지붕을 떠이고 일떠선 삼지연청년역의 겉모양이 멋있다고, 설계를 잘했다고, 한폭의 그림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없이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삼지연청년역은 대기홀, 표파는곳, 간이매대, 도서매대, 기념품상점, 식당,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훌륭히 건설되였다.

역사안의 1층 중앙홀에서 2층 대기홀까지는 계단승강기가 놓여있고 렬차시간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역홀에는 지붕을 씌워놓아 려객들이 눈비를 맞지 않게 해놓았다.

특히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비롯하여 모든 요소요소들이 완벽하게 꾸려져있다.

삼지연못가역

삼지연못가역은 중앙홀, 표파는곳, 대기실, 도서매대, 간이매대, 식사실, 청량음료점 등으로 꾸려져있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진 역사안은 물론 지붕을 씌운 역홀이 려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다.

건물들에 대한 마감을 이 지방에 흔한 부사나 나무같은 건재를 가지고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시공을 잘하였는데 마감건재를 자체로 생산리용한것이 특색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을 돌아보시면서 역내부가 특색이 있으며 소박해서 마음에 든다고, 삼지연못가역을 산간지대의 멋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건설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서만 참답고 열렬한 사랑이 나올수 있으며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되새겨볼 때마다 그이를 모시였던 그날이 삼삼히 떠오르군 합니다.

수기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동행하였던 저는 감자수송에서 애로되고있던 문제에 대하여 말씀올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감자수송대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륜전기재들을 다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관심하시여야 할 문제, 풀어주셔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으시였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무겁게 들어주시고 그자리에서 대책까지 취해주시였던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16사단이 삼지연군꾸리기를 통채로 맡아하고있는 조건에서 군에서도 창조물을 하나 맡아 건설하고싶어하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설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서는 백두산사적비와 교양마당,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글발 하나도 무심히 보시지 않으시고 백두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인 우리 일군들이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감자농사와 들쭉재배, 발전소들의 기술개건에 주타격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혁명의 성지에서 사는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선렬들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들었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정책옹위전, 당정책관철전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삼지연군당위원장 양명철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았다.

두둥실 떠오른 태양이 따사로운 빛발을 쏟아주는 양지바른 둔덕에 자리잡은 공장은 산업시설맛이 나게 잘 꾸려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눈속을 헤치고 찾아온 우리를 반가이 맞아준 공장지배인 림춘남동무는 공장은 크게 감자가루생산건물, 감자가공품생산건물, 2만t급감자저장고, 보조건물, 로동자합숙으로 나뉘여져있다고 하면서 년간생산능력이 수천t, 연건축면적은 2만 7920여㎡에 달한다는 자랑부터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장에 모시였던 영광을 지닌 그는 우리를 먼저 감자가루직장으로 안내하였다.

우리는 려객선의 복도처럼 화려하고 정갈한 위생통과복도에 들어섰다.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킨 위생통과복도에서니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고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생산공정이 한눈에 보였다.

벨트콘베아에 실려온 감자들이 껍질벗기기, 씻기, 선별, 랭각, 익히기공정을 거쳐 가루가 되여 포장되는 광경이 볼만 하였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지배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건조기에서 잘 마른 감자가루가 나오는것이 종이공장의 초지기에서 휘종이가 생산되여 흘러나오는것처럼 보였다. 감자가루에서 구수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감자가루는 농마를 생산할 때보다 실수률이 높으며 감자맛그대로라고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렸다.

공장종업원들은 운영계획에 따라 과학기술학습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기술학습자료들을 열람하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식료공업의 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오늘 〈로동신문〉 4면입니다.》

콤퓨터화면에 현시된 당보를 보여주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많은 종업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지배인은 자랑하였다.

종합조종실에서는 모든 생산공정들과 운영설비들을 감시, 측정 및 조정하고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수 있었다.

큰 공장이지만 기계의 동음은 크지 않았고 기대공들도 많지 않았다.

우리는 뒤마당에 자리잡은 감자저장고를 찾았다. 밖에서는 칼바람이 쌩쌩 불지만 여기에서는 감자저장에 적합한 온습도가 정확히 보장되고있었다.

공장을 참관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멋쟁이공장에서 일하고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터놓는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도 즐겁기 그지없었다.

생산건물도 멋쟁이이지만 구내식당, 목욕탕, 로동자합숙은 또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경쾌한 기적소리가 공장구내를 떠나는 우리의 귀전을 울렸다.

공장에 석탄을 비롯한 원료, 자재들을 실어들이고 생산한 감자가루제품들은 제때에 실어갈수 있게 포태역과 잇닿은 전용선으로 화물렬차들이 들어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세운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과 더불어 나날이 번영할 군의 광명한 래일이 우리에게 가슴부듯이 안겨들었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216사단 돌격대원들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216사단 설계가들과 군일군들

삼지연청년역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종업원살림집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현대적인 생산공정

삼지연못가역

삼지연읍종합상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통이 큰 잡도리로 새해농사차비에 총력을!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전야

룡 천 벌 에 서

새해농사차비전투로 들끓는 룡천벌안의 협동농장들에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룡천군과 염주군, 신의주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행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매일 많은 거름을 운반하고있다. 올해농사의 밝은 전망을 예고하듯 포전마다 질좋은 거름더미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룡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전진의 보폭을 큼직하게 내짚으며 거름운반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군일군들부터가 들끓는 포전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중의 앞장에서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특히 전투 첫날 아침 장산협동농장 제1작업반 포전에 나가 질통을 지고 거름운반전투를 진행한 군당책임일군의 남다른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전투장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작업반에서는 그날 계획된 거름운반과제를 앞당겨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도 사회주의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나서고있다. 품들어 마련한 질좋은 거름을 륜전기재들에 싣고 해당 협동농장들에 나간 이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지난 4일 하루동안에만도 이들은 수천t의 거름을 포전들에 운반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담당포전들에 질좋은 거름을 듬뿍 내고있다.

신암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거름운반전투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이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흐르는 분과 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뜨락또르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속에 일정계획의 2배이상에 해당한 거름운반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장산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전시식량생산에 앞장섰던 전세대 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쌀로써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각종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매일 1천여t의 거름을 포전으로 운반하고있다. 쌍룡협동농장에서는 일군들의 면밀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하여 높이 세운 거름운반계획이 매일 120%이상으로 뛰여오르고있다. 포전별 토양특성에 맞게 거름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지력을 높여나가고있는 룡암포협동농장에서도 다수확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덕승협동농장에서는 밥술을 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름실어내기전투에 떨쳐나섰다. 결과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이 세운 전투과제가 어김없이 수행되고있다. 다른 농장들에서의 거름운반실적도 시간을 다투며 계속 오르고있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지난해보다 매일 1.3배이상의 질좋은 거름이 포전으로 운반되고있다.

염주군에서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가지고있는 륜전기재들을 거름운반전투에 총동원하였다. 군일군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된 량의 거름을 해당 농장의 포전들에 지체없이 운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있다.

남압협동농장의 일군들은 거름운반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농장적으로 매일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이 포전에 실려나가고있다.

외하협동농장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조건을 리용하여 발구로 거름을 운반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전개하였다. 농장의 부림소들이 거름운반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구석진 포전들에도 정보당 20t이상의 거름이 운반되고있다. 농장에서는 지난해의 1.2배에 해당한 질좋은 거름을 운반하여 지력을 높여나가고있다.

내중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품들여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내는데만 그치지 않고 비료성분이 허실되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주고있다. 그러면서도 일정계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거름실어내기전투에서 앞장선 단위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군적으로 매일 6천여t의 운반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신의주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황금벌의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불같은 일념안고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실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전투를 앞두고 시의 책임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려 포전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서 6만여t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담당농장들에 책임적으로 운반해주도록 면밀히 작전하였다. 이와 함께 지력이 낮은 포전들이 많은 농장들에 대한 집중적인 거름운반전투를 내밀어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다같이 다수확을 낼수 있게 하고있다.

석하협동농장에서의 거름운반속도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정보당 5t이상의 거름이 포전마다에 더 나가고있다. 토성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농장들에서도 거름운반량이 많은 조건에 맞게 로력과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단위시간동안의 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결과 시적으로 3일동안에 근 1만t의 질좋은 거름을 운반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시에서는 여러가지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애국충정의 불길높이 거름운반전투에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는 룡천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일

다시한번 전형단위의 본때를

금 강 군 에 서

금강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드높은 결의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많은 유기질비료가 생산되였다.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처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뼈와 살로 새겨넣으면서 일군들이 다시금 깊이 자각한것이 있었다. 자기 군이 바로 전형단위라는것이였다.

보다 높은 올해의 유기질비료생산목표가 세워졌다.

아름찬 과제였지만 이들은 배심을 든든히 가지였다.

앞선 단위를 본받고 따라앞서기 위해 어디서나 들끓고있는 현실은 낡은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본새를 대담하게 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새롭게 분발하여 목표수행방도를 혁신적으로 찾았다. 청년들을 발동시켜 부식토확보전투에서 주력으로 내세운 사업이 그중의 하나였다. 지대적특성에 맞게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이는데서 부식토확보사업은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농사차비의 다른 공정들도 수행하면서 종전보다 훨씬 많은 량을 확보한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믿고 내세울 때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내밀었다.

협동농장들에서 청년들로 돌격대가 무어졌다. 농장일군들은 때로는 밤에도 화불을 켜들고 청년들과 함께 부식토확보전투를 벌리면서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농장원들도 적극 떨쳐나선 가운데 하루에 수천t의 부식토를 확보하는것과 같은 혁신이 창조되였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가두녀맹원들도 하루동안에 애국의 땀을 바쳐 마련한 수백t의 유기질비료를 농장에 운반하였다. 특히 가두녀맹원들은 대용석회질소비료생산원료의 하나인 진거름을 많이 마련하였다.

전형단위가 일을 제낀다는 평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다. 당정책은 이렇게 관철해야 한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일하는것이 바로 전형단위의 일본새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유기질비료생산의 질을 높이는데도 힘을 넣었다.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나간 사실을 보자.

질보장을 위해 농장들에서는 재를 비롯한 원료들을 마련하고있었다. 일군들은 그것을 탈곡장들에 세대별로 모아놓도록 하였다. 이 방법이 농장원들을 분발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모았는가를 설명이 없이도 알수 있게 하기때문에 자연히 세대별경쟁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일군들은 그것이 단순한 승부다툼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앞장서겠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반, 분조들에서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결국 농장원들은 작업장으로 오가는 길마저 무심히 걷지 않고 한줌의 원료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쓰면서 유기질비료생산의 질보장을 위한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일군들은 올해신년사에서 농업부문앞에 제시된 과업을 풍년열쇠로 틀어쥐고 그 관철에 더욱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현지보도 시 작 이 좋 다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산제1작업반 거름실어내기전투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속에 받아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부르는 표어들,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기들, 흰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거름을 가득 싣고 포전길을 달리는 뜨락또르들, 신심과 락관에 넘쳐 거름질통을 지고 내달리는 농장원들…

1월의 찬바람은 모든것을 얼구어버릴듯 맵짜다.

하지만 전투장은 올해에 기어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려는 이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진다.

《새해농사차비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농장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길 좀 보십시오. 새벽부터 떨쳐나 벌써 많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습니다.》

거름질통을 진채 뜨거운 입김을 확확 내뿜으며 하는 농장관리위원장의 말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발동소리 기운차게 울리며 거름을 가득 실은 뜨락또르와 달구지들이 련이어 포전으로 들어선다.

농장원들이 달구지에 실린 거름을 부리우는 사이에 자동부림장치가 설치된 뜨락또르는 벌써 포전밖을 나서고있다. 잠간사이에 포전에는 새로운 거름더미들이 련속 생겨난다.

다른쪽에서는 농장원들이 뜨락또르와 경쟁이라도 하듯 승벽내기로 거름더미를 쌓아간다. 거름운반에서 앞서나가는 3분조의 뒤를 1분조의 농장원들이 바싹 따라선다.

분조별, 농장원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거름운반전투는 힘있게 벌어진다. 흐르는 땀을 씻을 사이도 없이 거름질통을 지고 앞장에서 달리는 3분조의 리금도분조장과 2분조 선동원 손경순동무, 거름을 부리운 즉시 되적장으로 기운차게 달리는 뜨락또르의 힘찬 동음…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어느새 한개 포전의 거름실어내기가 끝나고 다른 포전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3분조의 농장원들 하루 거름운반계획 130%계선 돌파!

현장속보판의 주먹같은 글발들이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애국의 열정을 더욱더 분출시킨다.

《이 기세로 나가면 150%는 문제없습니다.》

박기동작업반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또 한대의 뜨락또르가 거름을 싣고 포전으로 들어선다. 정해준 위치에 멎어선 뜨락또르가 잠간사이에 싣고온 거름을 부리운다. 포전에는 새 거름더미들이 련속 생겨난다.

새해전투시작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으며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이들의 열의는 드높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혁신의 기상 넘치는 전야에는 가을날의 《쌀더미》들이 계속 늘어만 간다.

리 영 학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일념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단상 첫 걸 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사회주의전야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며 취재길을 이어가던 내가 신천군 새날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뜨락또르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작업모습은 나의 가슴을 흥분으로 끓게 하였다.

농장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이곳 관리위원장은 새해전투가 시작되여 3일동안에 정보당 20t이상 거름을 낸 포전들만 해도 수십개나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고 이런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간다면 올해농사도 문제없습니다.》

첫걸음!

례사롭게 하는 그 소박한 한마디가 나에게 주는 충격은 컸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의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 작업반대렬이 늘어난것이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였던가.

아니였다.

담당포전을 당중앙위원회뜨락또르잇닿아있는 전투초소로 여기고 온 한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굳게 지켜낸 우리의 다수확자들, 쌀로써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려는 이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이 안아온 승리가 아니였던가.

무릇 한걸음의 보폭은 짧다.

하지만 황금벌의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일념안고 이들이 자신심있게 내짚은 새해의 첫걸음을 어찌 보통걸음의 척도로만 재여볼수 있으랴.

다수확의 높은 로적가리를 마음속에 안고 뜻깊은 9월의 경축광장으로 내달리는 애국의 자욱이여서 그 첫걸음이 그렇듯 크고도 힘찬것이리라.

승리자의 신심드높은 농업근로자들의 발걸음소리는 황금이삭설레이는 사회주의전야의 서곡으로 나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들었다.

본사기자

개천시 룡진협동농장의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

수들속에 들어가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해설해주어 그들이 거름실어내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예비부속품을 비롯하여 뜨락또르의 만가동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해주고있다. 여기에 고무된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단위시간동안의 거름운반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거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각종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거름실어내기에 집중시키고있다. 농장의 부림소들이 거름실어내기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는것만큼 거름실어내기실적이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온 나라가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영농물자와 자재,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벼랭상모판씨뿌리기와 모내기전투기간에 농촌지원로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의밑에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황 해 남 도 에 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필승의 기상안고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첫 전투하루동안에만도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3만여t의 도시거름과 30여종에 28만 6천여점의 삽, 호미, 비닐박막, 배낭식분무기를 비롯한 중소농기구와 영농자재를 농촌에 실어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도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 공장, 기업소들, 시, 군들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첫 도시거름실어내기와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본때있게 벌어졌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령도업적단위들에 내려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르자고 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시거름과 중소농기구를 싣고 여러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해설해주면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해주시의 책임일군들은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 도시거름을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미리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첫 전투 하루동안에만도 20여종에 2만 7천여점의 중소농기구와 영농자재, 많은 도시거름을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안악군과 재령군, 배천군, 신천군, 청단군을 비롯한 도안의 군들에서도 애써 마련한 많은 중소농기구와 영농자재, 도시거름을 농촌에 실어다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도시거름을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황 해 북 도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에 질좋은 거름을 보내주기 위한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섰다.

지난 4일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000여대의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자체로 마련한 수만t의 질좋은 거름을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보내줄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농업생산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켜주면서 모두가 농촌지원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애국의 열정을 더욱더 분출시킨다.

《이 기세로 나가면 150%는 문제없습니다.》

박기동작업반장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또 한대의 뜨락또르가 거름을 싣고 포전으로 들어선다. 정해준 위치에 멎어선 뜨락또르가 잠간사이에 싣고온 거름을 부리운다. 포전에는 새 거름더미들이 련속 생겨난다.

새해전투시작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으며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이들의 열의는 드높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혁신의 기상 넘치는 전야에는 가을날의 《쌀더미》들이 계속 늘어만 간다.

리 영 학

많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있다.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거름생산계획을 정확하게 주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총화하는 등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도급기관들과 사리원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 많은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은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한사람같이 떨쳐나 질좋은 거름을 사리원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사리원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많은 도시거름을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과 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시녀맹위원회 등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품을 들여 생산한 거름을 농장포전들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서흥군과 신계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많은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 군협동농장들의 포전들에 질좋은 거름더미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함 경 북 도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새해 정초부터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시, 군, 구역들과 도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거름생산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거름생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섰다.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시, 군, 구역책임일군들의 뒤를 따라 모든 일군들이 제손으로 생산한 거름을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주었다.

도급기관들과 청진시안의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이 거름생산준비로 들끓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주민들은 거름더미이자 곧 쌀더미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겨울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정과 직장들에서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였다.

김책시와 회령시, 경원군, 길주군, 화대군, 어랑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짬짬이 마련한 각종 거름을 사회주의협동벌들에 실어다주었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여 지난 이틀동안에만도 도적으로 연 수십만명의 로력과 수백대의 자동차, 뜨락또르, 수만대에 달하는 소달구지, 손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이 동원되였으며 수만t의 질좋은 거름이 협동벌들에 실려나갔다.

세차게 나래치는 사회주의농촌지원열풍은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량 강 도 에 서

량강도에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전변되여가고있는 삼지연군의 포전들에 거름을 실어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혜산시안의 도급,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감한 돌격전으로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여 며칠사이에 수백t의 거름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감자포전들에 집중수송하였다.

많은 수송기재들이 동원된 조건에서 현지에서의 연유공급과 정해진 포전들에 거름을 부리우기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된 거름을 필지별, 포전별특성에 맞게 실어내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도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것과 함께 도급, 시급기관들 호상간의 거름수송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자동차운전사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체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급,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북방의 엄혹한 추위와 난관을 박차고 감자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서도 눈이 덮여있는 북부고산지대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각종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수송이 불리한 감자포전들에 정보당 수십t씩의 거름을 실어내고있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삼지연군의 감자밭면적을 늘이고 지력을 높이며 감자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한해에 수만t이상 생산하는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릴 목표밑에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장원들은 거름수송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가리라

노래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부르며

천만군민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백두산정에 오른것처럼 앞길이 환히 내다보이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며 인민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철의 의지, 열화같은 사랑이 굽이치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새겨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없는 격정이 노래 《우리의 김정은동지》에 실려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인민에게는 이 행성의 그 어느 나라나 쉽게 실현할수 없는 대업을 성취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이렇듯 양양된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의 핵을 진실하게 구가하고있는것이 노래 《우리의 김정은동지》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긍지는 없다. 인민이 가장 사랑하며 즐겨쓰는 호칭인 《우리》라는 부름으로 위대한 태양을 노래한 여기에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무게가 있는것이다.

시대의 명곡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의 진실한 반영을 떠나서 태어날수 없다. 지난 세기 조국해방의 새봄을 맞이한 기쁨을 안고 우리의 혁명시인이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라고 심장의 격정을 터치게 한 그런 환희와 감격을 천만군민은 해를 이어가며 가슴벅차게 체험하여왔다.

피눈물의 12월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천만군민은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비분으로 몸부림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은정어린 조치들에서 우리모두는 변함없는 태양의 따뜻한 열과 정을 받아안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정녕 어느 한 때만의 체험이 아니였다.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찾으시여서는 고고성을 터친지 몇달밖에 안되는 아기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 후 다시 섬에 오시였을 때에는 아기의 첫돌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모신 크나큰 행운을 심장깊이 절감한 인민이였다.

어찌 그뿐이였던가.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긴장하게 벌어지는 건설전투기간에 멀고 먼 그곳에 여러차례나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나서며 군인들과 인민들은 《우리 원수님—》 하고 심장으로 웨치였다.

절세의 위인의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원수님은 고금동서에 없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신다는것을 감격의 눈물속에 새긴 천만군민이였다.

이런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응축되여 명곡의 제목이 되였으며 인민의 진정이 심장의 언어로 엮어져 명가사가 된것이다.

믿고살 운명의 하늘되시여
의지할 마음의 기둥되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희망을 주고 새 힘 주신분
…

오늘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하늘, 마음의 기둥을 찾아 방황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며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있으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다.

핵탄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주체조선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은 이렇게 천겹만겹으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품은 진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는 하늘처럼 넓은 사랑의 품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살며 투쟁해온지 벌써 여러해가 지났다. 그 나날에 체험한 가슴뜨거운 사연이 가사와 선률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져 노래는 더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천만을 안으신 어버이되여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 되여》라고 노래부르는 국방과학전사들의 추억의 세계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와 《11월대사변》…

한 나라가 한해동안에 이런 경이적인 승리를 련이어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원쑤들의 비렬한 제재와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지난 한해동안에 대승리, 대사변들을 련이어 펼치였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경사를 두고 그들은 한결같이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의 대승리가 이룩되였다고 말하고있다.

진정 우리 원수님께서 사회주의내 나라를 지키는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바치고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수백수천권의 책으로도 다 전할수 없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길로 깊은 밤 국방과학전사들을 찾으시여 새날이 밝도록 함께 계시며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위험천만한 화선에 그들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국방과학전사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들으며 크나큰 격정으로 가슴끓이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 나라 강산에 펼치신 가슴뜨거운 사랑의 화폭들은 그 얼마였던가.

궂은비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인민을 위한 의료봉사기지건설장을 찾아주시고 마식령지구에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스키장이 일떠섰을 때에는 12월의 찬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의자식삭도를 타고 그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절세위인의 모습은 진정 사랑과 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령도자만이 수놓을수 있는 력사의 화폭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형상의 바탕으로 하고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한껏 분출시킨것으로 하여 노래는 우리의 혼연일체가 어떤것인가를 밝히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는것이다.

노래 《우리의 김정은동지》의 생명력은 또한 나라의 국력뿐아니라 인민의 존엄과 배심도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담보되고 지켜진다는 심원한 진리를 새겨주는데 있다.

지금까지 언제 한번 우리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과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전쟁책동이 중단된적이 없었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조선반도주변에 몰려들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였다. 하지만 내 나라 강산에는 언제 한번 침략의 불구름이 덮인적이 없었다.

내 조국의 평화가 어떻게 수호되는가를 우리 인민은 가슴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 노래로 대답하고있다.

…

인민을 지키는 장군되시여
온 세상 밝히는 태양되시여
위대한 강국의 존엄주시고
찬란한 미래 펼치시는분
우리의 행복 김정은동지
우리의 영광 김정은동지
인민은 길이 그 품에 살리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렇다. 우리의 원수님은 인민을 지키는 천하제일의 장군이시다.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던 몇해전 3월 적들이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케트군의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신 우리 원수님의 모습은 행성을 뒤흔들었으며 적들을 기절초풍케 하였다.

—핵무기가 출현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할것이라고 발표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라는 말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울려나왔는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을 상대로 핵선제타격을 선언한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은 실로 무쌍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담력과 배짱은 곧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라는것을 세계는 알게 되였다. 우리 원수님의 그 무한대한 담력과 배짱으로 내 나라는 오늘 어떤 침략자도 감히 넘볼수 없는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새로운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그 환희와 격정이 《우리의 행복 김정은동지 우리의 영광 김정은동지》라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의 분출로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영광넘친 길을 걸어온 천만군민이 이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새해의 총진군길에 신심드높이 떨쳐나섰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더없이 친근하고 천백배의 힘을 주는 태양칭송의 노래를 심장깊이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승리의 해로 조국청사에 자랑스럽게 빛내일것이다.

차 수

드높은 신심, 강렬한 지향

◎

주체사상탑앞에서

며칠전 저녁이였다. 대동강유보도를 거닐던 나는 문득 주체사상탑앞에서 멈추어섰다.

하늘높이 치솟아올라 밤하늘을 밝히며 유난히도 밝은 광채를 뿌리는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를 바라보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한 구절이 의미깊게 되새겨지며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이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

주체사상과 주체조선!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말과도 같아 생각이 깊어졌다.

올해는 우리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참으로 의의깊은 해이다. 하다면 어제날 작고 힘없는 나라로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어떻게 되여 오늘에는 위대한 강국의 령마루에 우뚝 올라서게 되였는가.

주체사상은 주체조선의 건국과 존립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온 위대한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간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민대중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워주시였다. 그 위대한 사상으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오직 자기의 신념, 자기의 힘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혁명을 전진시켜 사회주의승리자가 되였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 사회주의조선이 나아갈 길은 오직 주체의 한길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70년 력사가 증명한 과학이며 진리이다.

우리 인민의 존엄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인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부르며 더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내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것은 얼마전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앞에서였다.

지구를 돌고있는 우리의 위성을 형상한 상징구를 머리에 이고 서있는 탑중심부분에 새겨진 글발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미래》!

금빛으로 번쩍이는 글발을 무심히 바라볼수 없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격정속에 되새겨졌다.

다가올 앞날을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그냥 다가온다는 의미만으로야 어찌 우리 조국의 미래를 말할수 있으랴.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은 최근 몇년동안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변모되였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탄생시킨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선지 불과 두해도 안되여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으로 솟구쳐올랐다.

만리대풍에 나래치는 조국의 기상인양 우뚝 솟은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을 바라볼수록 나의 가슴속에는 약동하는 젊음으로 끝없이 번영할 주체조선의 모습, 세월을 주름잡으며 다가올 내 조국의 밝은 미래가 환희롭게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승리의 대통로를 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우리의 래일을 그려보며 나는 미래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빛나는 거리에 점도록 서있었다.

본사기자 김성룡

◎

려명거리에서

새해에는 수도에 새로운 설풍경이 생겨났다. 불빛밝은 려명거리의 밤풍경이다.

대낮처럼 환한 거리를 꽉 메우다싶이 붐비는 사람들, 황홀한 불야경을 배경으로 기쁨에 넘쳐 사진을 찍는 모습들, 새해의 첫시작과 함께 대동강반에 펼쳐진 황홀한 축포를 바라보며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의 창가마다에서 터치는 감탄의 목소리들…

려명거리의 전경도 눈부시지만 그 야경을 부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인상깊다. 아마도 당에서 마련해준 이 문명의 거리를 한밤이 지새도록 거닐며 우리 원수님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싶으리라.

퇴근길에 려명거리의 이채로운 밤풍경을 감상하는것이 나에게도 행복한 생활의 한부분으로 소중히 자리잡았건만 온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 이 기적의 거리에서 첫 새해를 맞고보니 생각이 깊어진다.

려명거리!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이렇듯 훌륭한 인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밝고밝은 인민의 웃음꽃을 만발하게 피워주시고 자신께서는 2017년의 온 한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결사전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황홀한 려명거리의 설풍경앞에서 우리는 내 조국의 려명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음미해보게 된다.

우리 원수님 새해의 첫아침 얼마나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던가.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다고, 이 위대한 승리는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력사적장거라고 하시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심장을 두드린다.

그렇다. 2017년의 대승리가 바로 우리의 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슴벅차게 안겨주고싶어하신 진정한 려명이 아니였던가.

이 위대한 승리, 이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려 남모르는 밤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원수님의 천만로고가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한몸을 깡그리 태우시여 우리 조국의 찬란한 려명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려명거리의 아름다운 설풍경이다.

본사기자 강효심

수필 1월의 환희

환희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축복을 받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격정과 환희가 1월의 강산에 차고넘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새해의 첫아침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 우리의 눈앞에 어려온다.

새해의 모든 축복을 다 받으셔야 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들,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먼저 사랑의 축복을 보내주셨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던 전쟁로병이며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이고 승리이라고 하면서 두주먹을 억세게 틀어잡고 생산현장으로 달려가던 전력생산자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올 신심드높이 첨단개척의 길에 새해의 첫 자욱을 내짚은 과학자들과 올해에 이룩될 눈부신 성과들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확신에 넘쳐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정녕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환희였던가.

가슴벅차게 2018년의 환희를 새겨안을수록 우리의 추억은 2013년을 맞이하던 제야의 그밤에로 끝없이 물결친다.

그밤은 몹시도 맵짰다. 허나 눈부신 불빛이 넘쳐흐르는 체육관의 신년경축홀은 감격과 환희로 달아올랐다.

날씨는 류달리 추워도 나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하늘에 불보라를 뿌리며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각국의 외교사절들, 각계층 수도시민들과 0시를 맞으면서 하신 말씀이였다. 그이의 한마디 말씀에 천하가 밝아지고 따뜻해졌다. 그밤의 경축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화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어버이가 안아온 환희였다.

겨울에도 봄을 안고 사시는 위대한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시는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안아온 환희여서 그토록 눈부신 우리의 1월이다.

진정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깊은 밤, 이른새벽,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건설장들은 그 얼마이며 파도세찬 풍랑길, 험준한 칼벼랑길을 헤치시며 이어가신 전선길은 몇천, 몇만리이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새로운 시대정신,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여 우리 조국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모되였고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은 기적적인 승전포성이 련이어 장쾌하게 터져올라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하늘끝까지 치솟아올랐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력이 만방에 과시되는 벅찬 현실에서 천만군민은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온 세계가 부러워할 휘황찬란한 래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것을.

1월의 환희, 진정 그것은 위대한 백두령장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며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충정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조향미

고려약재 황금의 리용

고려약재로 유명한 황금(속썩은풀의 뿌리)에는 바이칼린, 클라보노이드, β—시토스테롤, 수지, 정유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소시호탕을 비롯하여 황금을 넣은 여러가지 약들을 제조하여 병치료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을뿐아니라 약효가 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이 고려약재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염증약, 열내림약, 간염약들을 개발하여왔다.

특히 천연물질을 가지고 간장질병들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적극화되고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연구사들은 고려약재 황금을 리용하여 항비루스, 항염증, 열물내기효과가 큰 바이칼주사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바이칼주사약은 황금에서 주요활성성분만을 첨단기술로 추출분리하여 만든 고려주사약으로서 치료기일을 단축하고 간경변으로 인한 황달을 없애는데서 효과가 크다.

현재 만년제약합영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이 약은 열물내기작용, 독풀이작용, 리뇨작용이 강할뿐아니라 다년간의 림상실천에서 많은 간장질환환자들을 치료하여 전문치료기관들과 의료일군들의 주목을 끌고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사랑의 집에 넘치는 보답의 마음

공훈체육인 김윤미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아마도 사람들은 지난해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인기있는 득점으로 우리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김윤미선수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경기모습을 펼쳐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윤미동무와 가정에 대해 알고싶어 양력설을 맞으며 그의 집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당의 믿음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우뚝 솟아있는 체육인살림집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승강기를 타고 체육인살림집 15층에 올라 3호집 초인종을 누르니 나이지숙한 중년의 녀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윤미동무의 어머니 박정숙녀성이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방에 들어섰다.

명절이여서 그런지 방안은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박정숙녀성이 우리에게 오늘 딸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척들과 아버지와 함께 복무하는 군관, 안해들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대하여 소개하는것이였다. 김윤미동무의 아버지 김복철동무는 조선인민군 군관이였다. 또한 4.25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는 김윤미동무에게는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남동생이 있었다.

집식구들과 인사를 나눈 우리는 방들을 돌아보았다. 훌륭히 꾸려진 여러칸의 넓은 살림방들은 매우 이채로왔다. 공동살림방의 벽중심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어당겼다.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며 김복철동무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 윤미의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을 어찌 상상할수 있었겠습니까. …》

평범한 군인가정에서 태여난 김윤미동무가 소학교에 다니던 어느날 체육교원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적성체질인 윤미를 축구선수로 키우자고 하였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여서 부모들은 선뜻 응할수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딸을 예술체조선수로 키울 생각을 품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후에도 여러차례 찾아와 달리기속도가 빠르고 동작이 유연한 김윤미학생의 천성적인 소질과 전망에 대하여 확신성있게 이야기하는 지도교원의 진정은 마침내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이렇게 되여 식구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손길아래 김윤미동무는 소학교와 청소년체육학교 그다음에는 체육단에서 이름있는 녀자축구명수로 자랐다. 그 시절을 추억하는 김윤미동무의 얼굴에는 행복과 격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승, 대회에서 받은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인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저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연도환영과 국가적인 연회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현대적인 살림집과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들도 안겨주시고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대표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대표로 불러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복받은 체육인, 우리 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의 집입니다.》

이렇게 김윤미동무는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서 기어이 우승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것이 어찌 김윤미동무의 심정뿐이랴.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 우리 체육인들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새해의 총진군길에서 다지는 충정의 결의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보답의 열의로 불타는 천만군민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더욱 앞당겨질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며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주령봉

—김정숙교원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지혜를 합쳐간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새 기술소식

먹이첨가제를 리용한 고기의 품질개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계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고기의 품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성도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고기의 품질은 퇴살비률, 고유한 맛과 영양성분, 폐하, 색, 물기보존력, 만문한 정도 등을 가지고 평가하고있으며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가운데서 기본은 먹이와 기르기조건이다.

지난 시기 축산부문과 수산부문에서 호르몬제를 비롯한 성장촉진제를 마구 사용하고 영양성분의 평형이 보장되지 못한 먹이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동물의 정상적인 대사과정이 파괴되면서 퇴살비률이 낮아지고 지방함량이 높아지며 글루타민산과 같은 고기의 맛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적어져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였다. 또한 집약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온도와 잡음을 비롯하여 기르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인자의 영향으로 세포막의 정상구조가 파괴되면서 고기에서 액체성분이 쉽게 류출되고 아미노산결합이 파괴되여 단백질이 변성되며 맛과 냄새가 변화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품질이 떨어진 고기는 색이 창백하고 부석부석하며 겉면으로 즙액이 배여나오고 잡냄새가 나게 된다. 이런 고기는 맛이 없고 영양가치가 낮을뿐아니라 쉽게 변질되는 등의 결함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축산업에 큰 경제적손실을 주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유전적으로 품질이 좋은 집짐승이나 물고기품종을 선발육종하고 기르기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유기체안에서 여러가지 생화학적작용으로 고기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물질들로 먹이첨가제를 만들어 리용하는데도 주목을 돌리고있다.

이러한 먹이첨가제들을 보면 식물과 식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비타민E와 C를 비롯한 비타민류, 셀렌과 크롬 등 미량원소류, 생물활성물질 등이다.

실례로 마늘, 고추, 생강, 두충나무, 정향나무 등과 같은 일부 식물과 그 유효성분들은 유기체안에서 효소의 작용을 강화시켜 영양성분의 소화흡수률을 높이고 지방질의 과산화반응을 억제할뿐아니라 고기의 맛을 개선하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물질들의 합성을 강화하며 이로부터 고기의 품질을 개선한다.

본사기자

조선은 일심단결의 나라, 무진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강국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과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 남아프리카, 메히꼬, 뻬루에서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집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은 피눈물로 말한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지구상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인민은 오직 조선인민뿐이다, 력사에는 수많은 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런 걸출한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로, 무진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분이시다.

사회주의조선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속에서도 조선인민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대조선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뻬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숙동지의 가장 큰 업적은 항일의 격전장마다에서 김일성동지를 결사옹위하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빨찌산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조선의 어머니로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로므니아,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타이, 파키스탄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진보적인민들은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회고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김일성동지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면서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탁월한 사상리론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와 함께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부위원장은 세계는 미제의 가혹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조선인민이 세인을 놀래우며 력사적사변을 이룩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강위력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남기신 혁명유산이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베네수엘라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헌신적생애가 있었기에 조선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면서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에꽈도르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한평생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다져주신 애국자의 한생이며 조선을 사회주의보루,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의 한생이였다.

김정일각하회고 타이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 라호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진보적인민들의 탁월한 스승으로 격찬하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완성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싱가포르, 타이, 기네, 나이제리아, 세네갈, 리비아, 탄자니아, 알제리, 앙골라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들이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련이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브라질자유조국당위원회 위원장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격찬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타이 타통수지회사 리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조성된 엄혹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기네 교육성 국장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그토록 잊지 못해하고있는것이다고 말하였다.

성명,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나호드까시 태양칭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사회주의조선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조선인민은 미래를 락관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형제적인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먄마, 알제리인사들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틴 툰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였다.

먄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로선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로 되였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밝은 미래,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만년토대로 되였다.

김정일각하의 거룩하신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알제리작가이며 기자인 알리 가르줄리는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거창한 변혁들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조선을 온 세계가 다 아는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시키신 절세위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세기의 위인이신 그이를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다.

불레찐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정치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김정일동지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련이은 자연재해로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엄혹한 시기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이의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불레찐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숙동지는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조선혁명의 미래를 안아올리신 위대한 어머니이시다.

하기에 오늘도 조선인민은 김정숙동지를 그토록 잊지 못해하면서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승리로 빛날 조선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주체106(2017)년을 주체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대사변들과 기적적승리로 빛내이도록 천만군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새해에 즈음하여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여러 나라의 각계층 인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201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방력강화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강성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체 조선민족이 념원하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기치로 된다.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지난해는 조선을 핵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력사적대업이 성취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허위선전과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안아온 의의깊은 해로 력사에 기록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은 적들의 제재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장들을 일떠세우고 기계공업에 힘을 넣어 많은 화물자동차와 뜨락또르들을 생산하였다.

《화성-15》형의 시험발사성공과 국가핵무력완성의 선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으며 조선의 한치의 땅도 다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전 쏘련국방상은 새해 2018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승리들이 이룩되는 해로 빛날것이라고 하였으며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서기장은 조선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여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만방에 떨친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민주로총

새해에도 계속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로총이 2일 경기도에 있는 전태일렬사의 묘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새해에도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집회에서는 지난해말에 새로 선거된 민주로총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은 로동존중사회실현, 량극화해소, 사회련대를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하면서 새해에도 로동운동완수투쟁에 나서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 시각에도 관료배들과 자본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민중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있다고 그는 성토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이에 앞서 1일 올해 단체의 투쟁목표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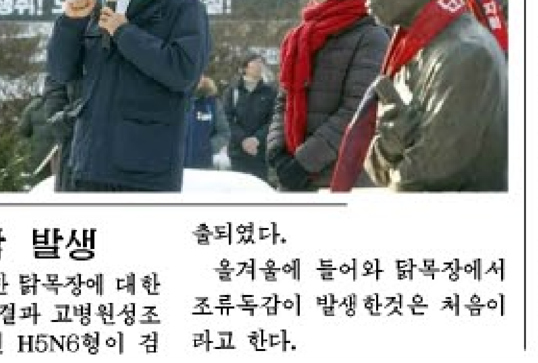
그는 박근혜퇴진운동을 이끌었던 민주로총 전 위원장을 비롯한 량심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얼마전에는 수배중이던 단체 사무총장마저 체포되였다고 절규하였다.

교원들과 공무원, 특수고용로동자들이 여전히 로조운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처참한 로동현실때문에 수많은 로동자들이 거리와 로동현장에서 싸우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주로총이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옳바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하면서 로동기본권 전면보장을 위한 투쟁, 최저임금인상과 로동시간축소, 비정규직없는 일터만들기 등을 위한 투쟁, 대자본, 대재벌투쟁을 3대 투쟁과제로 제시하였다.

민주로총의 요구를 넘어 전체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로총》과 긴밀하게 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반전평화와 조미평화협정체결, 자주통일 그리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페기, 《싸드》배치반대투쟁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독감 발생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3일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포천지역의 한 닭목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인 H5N6형이 검출되였다.

올겨울에 들어와 닭목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리명박을 구속하라

남조선시민단체 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통산모임이 《리명박을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국민이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구속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리명박이야말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정치적,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다스회사의 실소유자도 리명박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명박이가 다스회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수십조원을 처넣은 4대강사업과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 역시 리명박의 죄행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민들은 리명박과 그 일당을 구속함으로써 적폐세력을 완전히 없앨것을 요구하고있다.

초불들은 또다시 리명박구속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이게 될것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하루빨리 리명박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남조선대학생들
리명박역도구속을 위한 투쟁단체 결성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4일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명박역도심판을 위한 대학생쥐잡이특공대결성을 선포하고 역도의 구속과 특검수사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이 집권기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부정부패범죄를 저질렀으며 정보원을 부정선거를 위한 여론조작에 리용하였다고 폭로단죄하였다.

민생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파괴한 역도의 범죄행적을 파헤쳐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리명박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의 원흉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매주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힘의 론리는 통할수 없다

온 세계를 저들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려는 미국의 양키식오만성이 극도에 달하였다.

지난해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트럼프는 4대핵심목표라는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미본토와 미국민 및 미국식생활방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증진》, 《힘을 통한 평화유지》, 《미국의 영향력확대》이다. 이로써 트럼프가 대통령선거때부터 목아프게 부르짖던 오만성의 산물인 《미국제일주의》가 완전히 정책화되였다.

세계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배권을 확대하여 저들만을 위한 세계질서를 수립하자는것, 여기에 바로 《미국제일주의》안보전략의 기본목적이 있다.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를 수습할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릴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결전략, 지배전략이다.

이번 보고서발표놀음은 미국이 진보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을 더 악랄하게 감행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준다.

4대핵심목표의 하나인 《힘을 통한 평화유지》는 절대적인 힘의 우세에 의거한 세계제패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호전광들의 야망을 반영한것이다.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트럼프패거리들은 힘이면 그 어떤 국제문제도 제 마음대로 손쉽게 다룰수 있다고 여기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력대 미행정부들은 발족한 후에는 자기 식의 외교안보정책들을 내놓군 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목표를 담고있다. 실현수단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뿐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작성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역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반영한것으로서 선임자들이 제창하던 《큰 몽둥이》정책의 답습이다.

《큰 몽둥이》라는 말은 전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큰 몽둥이로 치라. 그러면 효력이 있을것이다.》라고 떠벌인데서 유래되였다. 《큰 몽둥이》는 그 표현자체가 보여주는것처럼 강한 도구 즉 강권, 힘을 의미한다. 《힘만능론》을 제창하는 미국에 있어서 힘은 곧 《정의》이고 생존교리이다. 루즈벨트가 《큰 몽둥이》란 말을 떠벌인 때부터 이것은 미국의 패권정책의 상징으로 되였다.

２０세기초 미국대통령이였던 루즈벨트가 내놓은 악명높은 《큰 몽둥이》정책은 몬로주의를 구체화한것이였다. 몬로주의로 말하면 일찌기 미국의 5대 대통령이였던 몬로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메리카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허울좋은 구호밑에 들고나온 침략과 예속화정책이였다. 루즈벨트는 이전의 몬로주의에 드리웠던 면사포마저 벗겨 던지고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구호밑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합법적》인것으로 선포하였다. 이 《큰 몽둥이》정책에 의하여 빠나마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친미괴뢰정권이 조작되였다.

미국의 ２７대 대통령이였던 타프트가 《딸라는 총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딸라외교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당시 우세하였던 경제력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군사적침략을 안받침하여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이룩해보려는 미지배층의 흉악한 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이였다. 결국 《큰 몽둥이》를 딸라보자기로 씌워놓은것이였다. 힘을 동반한 딸라외교정책으로 니까라과 등 여러 나라들에서 정변들이 일어났고 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의 경제적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였다.

그 이후에도 미집권자들은 도즈안, 선린정책, 트루맨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여기에 《민족자결》, 《국제평화》, 《문명발전》, 《호혜협조》 등 귀맛좋은 표현들을 있는대로 모두 붙이였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가면을 쓴 《큰 몽둥이》정책들이였다.

《큰 몽둥이》를 은폐한 《평화정책》들에 의하여 지난 세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란을 겪었다. 아시아에서는 조선전쟁이 일어났고 중동지역에는 재난이 련이어 들이닥치였다.

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은 변함없는 《큰 몽둥이》정책이다. 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취임직후 《미국의 국제주의》라는 간판밑에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는것을 대외정책으로 정하였다. 그는 ２００１년도에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국제주의》를 자기 행정부의 외교교리로 내세웠다. 그는 새 행정부의 주요관심이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는데 집중될것이라느니, 《평화는 무력으로 담보된다.》느니 하면서 힘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것이라고 뇌까렸다. 결과 부쉬집권시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의 군화발에 무참히 밟히였다.

당시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부쉬야말로 《지구상의 생명체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의 정책은 인류를 전멸에로 이끌어간다.》고 신랄히 비평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고안해낸 전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에 이어 현 트럼프행정부가 새로 책정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도 다를바없는 《큰 몽둥이》정책이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두고 모든 제재와 압박수단들을 최단기간내에 최대로 동원한다는 점에서 실패로 끝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힘을 위주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최대압박하고 끝까지 질식시켜 무조건 붕괴시켜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외 다른것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미국의 모든 정책들은 철두철미 《큰 몽둥이》 즉 군사적힘을 기초로 하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큰 몽둥이》정책을 변함없는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추구하는 미국에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여론들은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랭전식사고방식과 관점, 헛된 시도로 일관된 불균형적이고 편견적이며 어리석은 전략》으로 락인하고있다.

트럼프패당은 언제인가 미국신문 《워싱톤 타임스》가 미행정부에 경고했던 《제국의 위험》이라는 글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력사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력사는 력사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쓴맛을 보여주었다.》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큰 몽둥이》정책을 실시해오고있는 악의 제국 미국에 력사는 반드시 파멸의 선고를 내릴것이다.

림 원

용납될수 없는 살인범죄

얼마전 파키스탄국회 상원이 무차별적인 무인기공격으로 초래된 피해를 보상할것을 미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무인기공격을 가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물질적피해를 준데 대해 폭로하면서 자국정부가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결의의 부본을 유엔총회와 유럽동맹 등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보내여 미국의 무인기공격에 의한 사회경제적, 정신적피해의 심각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가 ２０１２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미군의 무인기공격으로 8년동안에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１ ９００～３ ２００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녀성들이다.

이 자료도 이제는 낡은것으로 되였다. 무인기를 리용한 인간살륙전은 최근년간 더욱 증대되고있다.

２０１５년에 미국방성은 무인기로 《특수대상》들을 공격할 때 생기는 민간인피해에 대해 개의치 말것을 지시하였다. 지난해 １２월 한해가 다 저물 때까지도 미군에 의한 무인기공습으로 죄없는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다.

미국의 무인기공격이 들씌우는 불행과 고통은 파키스탄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을 비롯하여 미국이 《반테로전》의 작전무대로 삼은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참상이다.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뻐스, 살림집, 결혼식장, 달리는 승용차에 무차별적인 미싸일사격을 가하는 등 미군의 무인기공습은 참으로 잔인하기 그지없다.

언제인가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미군병사들이 텔레비존오락기구를 다루듯이 무인비행기를 조종하여 무차별적공습을 감행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 벌리는 무인기전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닌보살하고있다. 《실수》니, 《오폭》이니 하는따위의 말장난을 하면서 민간인들의 죽음을 《테로분자소탕》과정에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어물쩍해넘기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는데는 무인기를 리용한 인간살륙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범죄자의 흉심이 깔려있다.

미국이 무인기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에짚트 등 여러 나라들에 무인기를 수출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살인무기들을 개발배비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은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이 아무리 인권범죄, 전쟁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국제사회는 절대로 용납치 않는다.

파키스탄에서 채택된 결의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미국에서 총격사건 발생

미국에서 새해를 전후로 총격사건이 련속 발생하여 주민들이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시에 있는 한 살림집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38살 난 녀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저시주에서는 16살 난 소년이 새해를 15분 앞두고 함께 살던 자기 부모들과 누이를 비롯한 4명의 가족성원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0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